

국토부, 공공이 있나

野 국회의원들 “KTX 서대전역 경유 철회” 요구에 면피성 답변 ... 광주역과 이죽жат대 논란도

호남고속철도(KTX)의 서대전역 경유 불합리성이 연일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광주시당 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김동철, 강기정, 임내현, 권은희, 신정훈, 김승남, 김관영 의원 등은 2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서대전 경유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코레일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없다.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 코레일, 광주시, 대전시 등이 참석한 ‘호남선 KTX 운영계획’회의에서 서대전역 경유

20% 운행 계획이 공식 거론됐다는 점에서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KTX 정차역에 대한 이죽жат대 논란도 일고 있다. ‘KTX노선 1도시 1거점역’ 원칙을 내세워 광주역 진입은 불허한 반면, 서대전역 경유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코레일측은 대전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대전역 경유 20% 등을 담은 ‘호남선 KTX 운영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연간 대전지역 철도 이용객 중 30% 안팎이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만큼 상관공과 등이 우려되고, 교통권도 배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대전과 마찬가지로 광주역 진입을 요구해온 광주시의 건의는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2013년 한해 호남선 KTX 승객 기준 광주역은 134만5000명으로 ‘KTX 거점역’인 송정역(121만7000명)보다 12만8000명이나 더 많다. 서대전역 이용객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이 50%가 넘는 광주역의 진입이 더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일관성 없는 행태를 두고 코레일 본사가 지리적으로 대전에 있는 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마저 대전여고를 졸업한 충청권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전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사장은 새누리당 대전 서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총선에 출마했을 정도로 대전과 정치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

고 있다.

특히 호남선 KTX 운영계획 승인권한을 쥐고 있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드러나면서 대전에서는 이미 ‘서대전역 경유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서대전역 경유를 놓고 호남권의 반발이 거셌던 지난 20일에는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사장, 권선택 시장이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철도인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환담까지 나눈 것으로 전해지면서 행사의 적절성 여부도 입설에 오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에 한라봉이 주렁주렁

21일 나주시 산포면의 한 농가에서 한라봉 수확이 한창이다. 올해는 눈이 적게 내리고 일조량도 많아 당도가 높아지는 등 작황이 예년보다 좋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간 한라봉은 설 전후까지 수확이 이뤄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 분노에 부라부라...연말정산 자녀·독신자 공제 확대

당정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큰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독신자·노후연금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

당정, 5월 소급적용 추진

납세자연맹, 증세 반대 서명운동

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을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김은영의 그림생각 100회
미술을 통해 본 시대와 삶 ▶3·16면

www.gjstec.or.kr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협력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 장비 및 레스토랑, 헬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대규모 국제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로 운용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30여년의 역사와 호남최고의 명성이 있는 **신양파크호텔**에서 위탁운영
문의/예약 062) 609-0500~1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A180 CDI Style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17.1km/ℓ, 고속도로연비: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A180 CDI night 1,461cc 1445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9.3km/ℓ (도시연비:17.1km/ℓ, 고속도로연비:22.7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99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